

18 수능 시작전 아침

7시에 고사장 도착. 8시 10분까지 머리를 깎고 적당한 난이도의 국어 기출과 새로운 글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월간 김봉소 몇 지문 정도를 풀었습니다. 물론 기출 제외 채점은 안했습니다. 멘탈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다 맞았다고 생각했죠. (이 때 푼 문제가 어느 정도 맞았는지는 그 후에도 채점을 안해 모릅니다.)

8시 10분 이후 이제 감독관님들이 들어 오시고 챙겨온 자료를 가방에 넣어 모두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방송을 잘 듣고 따라주세요. 안따른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분 동안 기출에서 배운 국어의 태도들을 떠올리며 8시 30분 드디어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파본 검사를 위함이고 파본 검사 이후 8시 40분까지 덮어 놓아야합니다. 여기서 파본 검사 하실 때 천천히 하십시오. 비문학 소재를 체크하고 문학에서는 무슨 작품이 나왔는지 봅니다. 저는 문학, 비문학, 화작문 순으로 풀기 때문에 문학이 20번부터 시작한다는 걸 체크했고 비문학과 몇 페이지에 있고 3지문을 어떤 순서로 풀지 이때 정했습니다. 저의 결정은 부호화, 오버슈팅, 목적론 지문 순으로 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덮습니다.

3분 정도 국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남은 시간은 눈앞 시험지 겹치 뒤에 비치는 문제를 푸려고 시도합니다. 시험지 앞면에 비치는 문제들을 대충 확인했다면 시험지가 완전히 덮인 상태로 뒤집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비치는 문제들도 보려고 시도합니다.
(소용없는게 잘 안보입니다. ππ)

8시 40분 18 수능 국어 짝수형 시작

저는 20번 문제가 있는 문학 작품부터 시작했습니다.
묘비명은 내신 때도 많이 보고 봉소에서도 여러번 봐서 익숙한데
이육사 강건너 노래는 뭐지? 꽤 어려운 시였습니다.
뭐 읽히는대로 읽고 넘어가고 긍정, 부정, 주요 표현(반어법 등) 표시하고
20번으로 갔는데.... 띵? 답을 못 고르겠습니다.
약간 당황했지만 저는 반복 학습이로 인해 막히면 바로 넘어가야한다는 지침을 따르며 바로 넘어갑니다. 문학은 이러쿵 저러쿵 풀다가 도깨비 불 관촌 수필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중요 작품이라고 소개되어있던 바가 있어서 안심을 했는데.....
사투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ππππ 하지만 문제 푸는데는 지장이 없더군요.
왜냐하면 (보기)를 참고하고 문학이라도 글자 그대로 워딩을 가져오니 문제가 다 풀리긴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9시 쯤에 끝낼 계획을 세운 문학이 9시 5분에 끝나자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봉소 때도 뭐 흔한 일이고 교육청, 평가원 시험 때도 이런일이 자주 있지 않았었나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이렇게 못푼 20번을 남겨둔채 비문학으로 넘어갑니다.

비문학은 부호화를 보니 정말 감동적으로 정보량이 넘쳐나더군요.

평소 기출 하면서 연습한대로 옆공간에 순서, 과정, 중요 내용을 한 두단어 정도 적고 계속 읽어내려가더니 어느새 지문이 뚫려있었네요.

(보기) 문제는 (보기)부터 지문과 대응을 잘 시켜 분석하고 선지를 보니

봉소에서 많이 본 유형이어서 쉽진 않았지만 잘 풀렸네요.

아 참, 비문학 풀 땀 답이 너무 확실하면 지문에서 근거정도 눈으로 있는지

쓰으윽 확인하고 나머지 선지는 안보고 넘어갔습니다. 이래서 부호화에 걸린 시간: 15 분

오버 슈팅은 어려웠지만 지문 옆 빈공간에 내용을 잘 정리하고 문단을

하나씩 뚫어가니 완벽히 이해는 안갔지만

29 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왜 2 점짜리인지 평가원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환율, 금리, 물가 상승에 대해 6 평 때 경제 지문에서 털리고 좀 배경지식을 쌓았습니다.

사실 배경지식이라고 해봤자 이정도입니다.

금리 상승-----> 이자율 상승 -----> 저축 상승, 대출 감소 ----> 물가 상승률 감소

(저축하면 이율 높아서 \uparrow \circ , 대출하면 이자율 높아서 손해, 돈이 적게 풀리니 물가 상승률 감소)

금리 하락-----> 이자율 감소 -----> 저축 감소, 대출 증가 ----> 물가 상승률 증가

(저축하면 이율 낮아서 개선해, 대출하면 이자율 낮아서 \uparrow \circ , 돈이 많이 풀리니 물가 상승률 증가)

환율 하락 (우리나라 돈 가치 상승 1 달러=1000 원인게 1 달러=500 원으로 변함)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우리나라 1000 원 짜리 물건이 미국에서 1 달러에서 2 달러로 변하니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감소, 미국 1 달러 물건이 1000 원에서 500 원이 되니 수입 증가)

환율 증가 (우리나라 돈 가치 상승 1 달러=1000 원인게 1 달러=2000 원으로 변함) ---->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우리나라 1000 원 짜리 물건이 미국에서 1 달러에서 0.5 달러로 변하니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증가, 미국 1 달러 물건이 1000 원에서 2000 원이 되니 수입 감소)

뭐 이정도는 이과 분들도 아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걸 알고 29 번의 1 번을 보니 확실히 맞아서

다른 선지 보고 괴로워하기 싫어서 넘어갔습니다. 이려고 푸니 걸린시간: 15 분

이 때부터 좀 풀렸습니다. 비문학에 35 분정도를 배치했었는데 5 분 밖에 안남았어요,

하지만 목적론 지문이 쉬워 걸린 시간: 5 분

쉽지만 관점의 공통점, 차이점 찾는건 18 9 평 하이퍼 리얼리즘 등 기출에서 핫하죠.

이려고 나서 20 분 정도가 남아 약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를 계획대로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하지만 마음을 잠깐 놓는 바람에 화작문 1,2,3 번에 5 분 썼습니다. ππ

그다음 7 번까지 풀었는데 10 분 종이 찢었습니다.

이때 마킹을 하고 나머지 문제를 답 선지 나오면 바로바로 넘어가서

1 분 정도가 남더군요. 이제 20 번을 풀고 마킹을 했더니 끝났습니다.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 번 틀렸습니다. 지금도 답 모릅니다.

가채점 표에 쓸 시간도 없었고 거의 지문을 씹어버리 듯한 기세로

뛰어나갔기에 집에 돌아와서 1 분 안에 답을 금방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한 제 예상 점수 92 점, 1 컷 90 점 였습니다.

나중에 까보니 제 성적은 98 점, 1 컷은 94 점....

1 컷이 높아서 한 번 쇼크 먹고 제 점수도 높아서 더 충격을 먹었습니다.

결론:

1. 수능 시험장에 일찍 가서 환경 적응 및 워밍업을 하세요.
2. 시험지 파본 검사하면서 계획 시뮬레이션 돌리세요.
3. 제발 모르면 넘어가요. 내가 어려우면 다른사람도 어려워요.
4. 마킹 꼭 10 분 전에 하세요. 급하게 5 분 전에 하다가 손 떨려서 실수합니다. 꼭 10 분 전에 마킹 마저 하고 문제 푸세요.
5. 못봤다고 생각해도 실망하지 않고 넘어가세요.
6. 절대 친구 분들이랑 답 맞추지 마세요.
7. 못 봤다고 생각해도 수시가 나를 구원해주겠지 마인드로 조급해 하지말고 넉넉하게 시험을 봅니다.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수학, 영어, 한국사, 지 1, 생 2 후기도 시간 있을 때 차근차근히 쓰겠습니다.

원하시는 자료는 쪽지나 댓글로 자유롭게 요청해주세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용하실수도 있는 링크들

<https://orbi.kr/00018874580> ----> 18 년 실시 교육청, 평가원 기출 선별

<https://orbi.kr/00018868599> ----> 수능 완성 미적분 2 선별, 관련 기출 및 실전적 꿀팁들

<https://orbi.kr/00018852528> ----> 수능 특강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선별 문제, 관련 기출

<https://orbi.kr/00018849360> ----> 19 년도 사관 1 차 27 번 빼꾸 좌표축 손풀이

<https://orbi.kr/00018842422> ----> 마지막 1 달 국어 학습법

<https://orbi.kr/00018840609/> ----> 미국 구글 본사는 꿈의 직장?

<https://orbi.kr/00018839767> ----> (경험담)수능 때 기적이라는게 있을까?

<https://orbi.kr/00018834366> ----> 수능날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왔다면? (경험담)

<https://orbi.kr/00018818915> ---->작년 아주대 의대 학종 면접 복기

<https://orbi.kr/00018822647> ---->10 월 21 번의 자세한 손풀이 및 역함수에 대한 태도

<https://orbi.kr/00018802169> ---->10 월 20,29 번 손풀이